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최희곤(Hee-Kon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2.5 다저자 생산성 |
| 2 문헌정보학 단행본저작의 내용분석 | 2.6 주제분야별 다저자 생산성 |
| 2.1 저자별 생산성 | 2.7 번역본 생산성 |
| 2.2 주제별 생산성 | 2.8 연도별 생산성 |
| 2.3 대학별 생산성 | 3 결론 |
| 2.4 핵심전공주제 생산성 | |

초 록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1997년까지 출판된 단행본 총 767종을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저자별 생산성, 주제별 생산성, 대학별 생산성, 핵심전공주제 생산성, 다저자 생산성, 주제분야별 다저자 생산성, 번역본 생산성, 연도별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dealt with author production, subject production, university production, core of the majoring subject production, the multi-authors production, authors majoring in their fields production, languages and periods 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general research pattern of us by using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of 767 items of monographic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between 1957 and 1997. This study was done to apprehend the general research patter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키워드: 연구동향, 단행본, 단행본저작, 내용분석, 생산성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논문 접수일 : 1999년 9월 20일

1 서론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의 근대화에 기여할 사서직 양성을 주된 목표로 1957년 연세대학교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처음으로 설립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이후 43년이 지난 현재 32개대학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석사 16개교, 박사 7개교로 그 양적인 발전은 지대하다. 또한 학문적 발전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관련학회들이 설립되어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하게 하는 장이 마련되어 문헌정보학은 그 발전적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과정과 학회의 설립으로 인한 문헌정보학의 급성장은 단행본의 개발 및 번역서를 필요로하게 되어 학문적 역량의 발전도 병행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발전과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띤 단행본에 관한 내용분석을 이용한 분석적 통계연구는,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단행본저작은 지난 43년동안 연구자들의 저술활동으로 인한 단행본과, 또 한편으로는 외국선진학문을 수용하기 위해 번역서의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단행본의 학술적 가치는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이 학문적 발전에 끼친 영향분석은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학문의 연구방향, 학문의 발전추세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행본저작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저작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43년간의 우리 학문분야의 핵심주제와 관심영역 혹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와 저조한 주제, 주제의 편중과 분포 등 여러 상황들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7년부터 1997년까지 43년에 걸쳐 발행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저작에 대해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며, 둘째, 저자별, 주제별, 대학별, 각 연대별 증감추이, 핵심전공주제별, 다저자별, 주제분야별 다저자, 번역본, 연도별 생산성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 종적인 비교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2 문헌정보학 단행본저작의 내용분석

본 고에서는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단행본저작의 생산성에 대한 것을 저자별, 주제별, 대학별, 생산성 뿐만아니라 핵심전공주제, 다저자, 주제분야별 다저자, 번역본, 연도별 생산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전망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개발될 단행본 연구 출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같은 연구를 통해서 문헌정보학의 핵심주제와 관심영역 그리고 주제의 편중과 분포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본 서지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박준식 편. "한국도서관학 관계문헌색인: 1945-1974", 한국도서관협회, 1976.
- 2) 박준식 · 이에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 한국도서관협회, 1994.
- 3) 최정태 편. "국내 도서관학 관계저서목록: 1945-1987", 국회도서관보, 제24권 4호, 1987. 7/8.
- 4) 최정태 편. "국내 도서관 관계저서목록: 1987-1997", 국립대학도서관보, 1998.
- 5) 국립중앙도서관 편. "학술논저총합색인: 1945-1983", 제12집, 1984.

상기의 5종의 기본 서지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자료가 한국 문헌정보학분야의 단행본저작 데이터의 망라성을 구비한 색인·목록집으로 그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 발표된 이들 도구들을 기본 분석틀로 삼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을 기본 분석틀로 삼고 여기에서 추출된 데이터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DB, 국회도서관 DB, 국·사립 교원명부, 문헌정보학 교수 인명부, 온라인목록, 교보문고 DB 검색 등을 탐색하여 정보원과 상호비교·분석하였다. 이와같은 2차정보원과 상호비교한 것은 기본정보원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고, 또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서 살펴 볼 부분은, 최정태가 편찬한 국내도서관학관계저서목록(1945-1987.6)에 13개의 학제적 분야가 포함된 단행본 1,060종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의 국내도서관관계저서목록(1987-1997)에는 2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단행본 900종을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두가지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를

종합하면 해방이후 1997년까지 발행된 문헌정보학관련 단행본 총수는 1,960종이나 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위에서 전개한 최정태와는 관점을 달리해서 분석기준 대상을 선정하였다. 최정태는 레퍼런스 틀을 분석기준에 넣어서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선행연구자는 너무 망라적 기준에 의한 단행본 목록리스트를 선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본 연구자는 그 기준을 학문적 기준에 의한 원칙을 가지고 단행본 목록리스트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단행본만을 대상으로한 총 767종을 최종데이터로 삼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물론 767종은 5종의 색인·목록집에서 1차로 조사된 것을 3차례의 필터링을 거쳐 데이터로 삼은 과정속에서 아래 7가지의 기준과 매칭되어 나온 최종 데이터이다.

1. 순수 문헌정보학 관련 단행본
2. 문헌정보학자가 저술한 단행본
3. 실무현장에서 출판된 단행본
4. 재야학자이면서 문헌정보학 관련 단행본
5. 비 문헌정보학자가 문헌정보학적 배경으로 하여 저술한 단행본
6. 각 기관, 단체에서 저술한 문헌정보학과 조급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제적 분야(inter-disciplines)
7. 기타 문헌정보학적 기반위에서 저술한 성격이라고 판단된 문헌

그리하여 1957년부터 1997년까지 발행된 문헌정보학 관련 단행본 중에서 이러한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저작은 767종의 데이터로 추출되었다.

2.1 저자별 생산성

저자별 생산성분석은 1957년부터 1997년까지 출판된 모든 단행본중에서 저작의 종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위 10위권까지의 다저자 순(출판종수가 같을 때는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각각의 저자목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여기에 공저자의 단행본은 각각 1명으로 인정하였다.

이상 <표 1>에서 나타난바 처럼 상위 10위까지

의 저자들이 생산한 단행본은 7종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단행본을 출판한 저자로는 J로서 총 23종을 출판하였다. 이어서 A, Y, K, C, K₂, O순으로 이들은 10종이상의 단행본을 출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단행본 생산성은 총 767종 가운데 182종을 발행한 것으로 약 23.7%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저자군으로 생각된다.

<표 1>에 나타난 데이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모든 다저자들이 주로 수십년간에 걸쳐 생

<표 1> 저자별 생산성

순위	저자	종수	저 서	출판사	연 도
1	J	23	① 도서분류법 개론	송의사	1964
			② 발전도상국의 도서관 (역)	한국도서관협회	1970
			③ 도서관 및 문헌이용법 (역)	"	1971
			④ 문헌분류법	중앙대 출판국	1971
			⑤ 도서관학개론	중앙대 도서관학과	1972
			⑥ 한국문헌기호표	중앙대 출판부	1972
			⑦ 문헌정보학원론	아세아 문화사	1977
			⑧ 일반참고문헌개설	한국도서관협회	1978
			⑨ 학술논문작성법	중앙대 출판부	1979
			⑩ 정보경제학원론	한국도서관협회	1980
			⑪ 문헌정보학<개정판>	"	1983
			⑫ 목록조직론	구미무역	1983
			⑬ 영미목록규칙 제2판 간략판 (공역)	"	1988
			⑭ 문헌분류이론 (공역)	"	1989
			⑮ 고려불전목록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⑯ 문헌정보학원론<제3개정판>	구미무역	1990
			⑰ 도서관 문화사 (공저)	"	1991
			⑱ 문헌분류론	"	1991
			⑲ 학술논문작성지침 : 문헌적연구 · 사례연구	성원사	1992
			⑳ 목록조직론<개정정보판>	구미무역	1993
			㉑ 서지정보의 상호교류 (공저)	아세아문화사	1993
			㉒ 국제백진분류법연구 : 인문학분야편	중앙대출판부	1995
			㉓ 문헌정보학원론<제4개정판>	구미무역	1996

〈표 1〉 저자별 생산성

순위	저자	종수	저 서	출판사	연 도
2	A	21	① 독서의 지식	신양사	1959
			② 양서의 세계	아카데미사	1959
			③ 출판개론	을유문화사	1963
			④ 도서관전	통문관	1968
			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정음사	1969
			⑥ 출판사회학	통문관	1969
			⑦ 한국출판세시론	성진문화사	1971
			⑧ 장서원론	"	1972
			⑨ 한국불교서지교	"	1972
			⑩ 한국서지학	경인문화사	1975
			⑪ 한국출판학연습	"	1976
			⑫ 출판실무편람	"	1976
			⑬ 한국서지학논고	광문서관	1979
			⑭ 한국플판문화론	범우사	1981
			⑮ 서점경영독본	한국출판판매	1982
			⑯ 국한국고서평석	동화출판공사	1986
			⑰ 국제출판개발론 (역)	범우사	1989
			⑱ 한국서지학원론	"	1990
			⑲ 옛책	대원사	1991
			⑳ 한국출판문화사대요	청림출판	1991
			㉑ 한국서지의 전개과정	범우사	1994
3	Y	15	① 서지 선독	경인문화사	1979
			② 한국 책판 목록 총현	정신문화연구원	1979
			③ 서지학 선독	경인문화사	1982
			④ 인문사회과학 문헌 서지정보원	이구출판사	1983
			⑤ 한글 주제명 표목표의 연구	"	1983
			⑥ 자연과학·기술문헌·서지정보원<개정증보고>	"	1984
			⑦ 한국서지학개론<제2개정고>	"	1985
			⑧ 인문과학 서지정보원(稿)	라이프사	1986
			⑨ 사회과학 서지정보원	"	1986
			⑩ 자연과학서지<개정3고>	"	1986
			⑪ 한국고서 정리법 연구	이구출판사	1986
			⑫ 한국고서 정리법 연구<개정고>	"	1986
			⑬ 조선후기의 활자와 책	범우사	1992
			⑭ 한국도서목록의 사적 연구	한국출판연구회	1992
			⑮ 인문과학 정보소프트	외길사	1994

〈표 1〉 저자별 생산성

순위	저자	종수	저 서	출판사	연 도
4	K	13	① 國稅圖書編目	계명대출판사	1975
			② 도서편목법	"	1978
			③ 목록학	"	1981
			④ 비도서자료 : 정리의 이론과 실제	도서관협회	1984
			⑤ 자료목록학	계명대출판사	1985
			⑥ 도서기호	"	1988
			⑦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	1991
			⑧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	1991
			⑨ 비도서자료 : 정리의 이론과 실제<2판>	"	1992
			⑩ 연속간행물의 정리	"	1993
			⑪ 문헌정보학 연구입문 : 의의와 방법 (공역)	"	1995
			⑫ 사회교육과 도서관	"	1995
			⑬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집문당	1996
5	C	11	① 고서목록집성	동국대도서관	1962
			② 고서분류목록법 上下	한국도서관협회	1970
			③ 한국 고 인쇄사	한국도서관연구회	1976
			④ 羅麗印刷術의 연구	경인문화사	1980
			⑤ 나려인쇄술의 연구<2판>	"	1988
			⑥ 고인쇄	대원사	1989
			⑦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1990
			⑧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1
			⑨ 한국서지학 연구	"	1991
			⑩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1993
			⑪ 한국목활자본	"	1993
6	K ₂	10	① 우리학교 도서관	동구문화사	1969
			② 특수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1969
			③ 도서관 통계 및 평가	한국도서관협회	1971
			④ 학교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현대교육총서	1971
			⑤ 독서교육론	일조각	1975
			⑥ 속독법 입문	정음사	1978
			⑦ 독서감상문의 이론과 실제	문지사	1979
			⑧ 참고업무개론	일조각	1980
			⑨ 엄마가 지도하는 독서교육:0세에서 국민학교·중학교	세문사	1987
			⑩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 (공역)	한국도서관협회	1994

〈표 1〉 저자별 생산성

순위	저자	종수	저 서	출판사	연 도
6	O	10	① 영미목록규칙 제2판 간략판 (공역)	구미무역출판사	1988
			② 문헌분류이론 (공역)	"	1989
			③ 공공도서관 운영론 (공역)	"	1991
			④ 도서관문화사 (공저)	"	1991
			⑤ 도서관 경영론 (공역)	계명대출판사	1993
			⑥ 서지정보의 상호교류 (공저)	아세아문화사	1993
			⑦ 정보학의 첫걸음 (역)	구미출판사	1993
			⑧ 문헌정보학 연구 입문 : 의의와 방법 (공역)	계명대출판사	1995
			⑨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역)	한국도서관협회	1996
			⑩ 도서관 · 정보센터 경영론 (공역)	계명대출판사	1997
8	S	9	① 고서의 진위와 그 연대 (역)	중앙대출판부	1969
			② 중국의 전적 (역)	한국도서관협회	1971
			③ 도서관본학요약 (역)	중앙대출판부	1975
			④ 일본전존한국일서연구	일지사	1985
			⑤ 일본방서지	정신문화연구원	1988
			⑥ 내사본판식 고문서 양식연구	일지사	1990
			⑦ 중국고서판본감정연구	중앙대출판부	1991
			⑧ 도서관학과 정보과학 (역)	정일출판사	1993
			⑨ 서지학의 제문제	혜진서관	1995
9	L	8	① 주제명 표목표	연세대	1961
			② 고서 분류 원전	연세대도서관학과	1966
			③ 동서저자 기호표	아세아문화사	1973
			④ 집현전 고	한국도서관협회	1978
			⑤ 한글순 도서기호법	아세아문화사	1982
			⑥ 새연대순 도서기호법	"	1986
			⑦ 문헌정보학 논총	구미무역	1994
			⑧ 한국문헌정보학의 문제들	"	1994
10	C ₂	7	① 정보학 원론	"	1979
			② Books from Korea	Korea Publishers Association	1979
			③ 정보사회론	성균관대출판부	1980
			④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for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	1982
			⑤ 도서관학통론	아세아문화사	1987
			⑥ 정보학 원론(2판)	"	1989
			⑦ 정보봉사론 (공저)	"	1992

〈표 1〉 저자별 생산성

순위	저자	종수	저서	출판사	연도
10	J ₂	7	① 도서관 정보전산화론	구미무역출판사	1982
			② 정보검색론	정음사	1987
			③ 도서관 정보전산화론<2판>	구미무역출판사	1989
			④ 정보검색론<2판>	"	1993
			⑤ 정보학의 실제 (공저)	한국도서관협회	1995
			⑥ 온라인 정보검색	교보문고	1996
			⑦ 지식구조론	한국도서관협회	1997
10	K ₃	7	① 도서관과 사회	한국도서관협회	1971
			② 도서-인쇄-도서관사	종로서적	1982
			③ 도서관 조직 경영론	아세사문화사	1983
			④ 도서관의 창	이대 도서관학과	1990
			⑤ 학교도서관 조직과 운영	이대 출판사	1990
			⑥ 도서관 조직 경영론<2판>	아세아문화사	1992
			⑦ 도서·인쇄·도서관사<2판>	"	1992
10	S ₂	7	① 도큐멘테이션 개설	한국도서관협회	1968
			② 정보검색론	아세아문화사	1977
			③ 정보검색론<2판>	"	1989
			④ 정보관리론 (공역)	구미무역	1989
			⑤ 과학기술 문헌정보론 (공저)	"	1990
			⑥ 최신정보검색론 (공저)	한국도서관협회	1994
			⑦ 과학기술 정보의 이해 (공저)	"	1997

산된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분석된 것에 비해 다저자군의 6위에 오른 O는 불과 10년동안에 걸쳐 10종을 출판한 것이므로, 연구 저작 활동이 매우 왕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서가 다작이라고 해서 저자로서의 자질·인품을 대표하는 것 만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다작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가치있고 질적인 하나의 저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작의 가치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항상 실재하는 문제이다. 즉 다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한편의 단행본이라고 해서 연구성고가 미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특징은 상위 다저자에 속하는 대부분이 한국문헌정보학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문헌정보학 1세대들이 핵심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문헌정보학을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선도해야할 2세대들이 주로 중간핵심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문헌정보학의 건전한 연구활동의 순환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시해야 할 부분은 가장 많은 저작활동

을 펼친 J는 비교적 광범한 전공에서의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저작내용을 보아도 창작물에서부터 공저·역·공역·편역까지 두루두루 폭넓은 형태의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주제도 세부전공주제 단 하나의 주제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연구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문헌정보학 태동기에서부터 연구활동을 한 것으로 적박했던 환경에서 제1세대 학자들의 다주제, 다저술 양태는 일반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J뿐만은 아니고 현재까지도 이런 유형의 저자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의 성격이 총류이거나 다주제의 학문이므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21종의 단행본을 출판한 A는 우리 학계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않는 재야 서지학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학 전공 뿐만 아니라 출판학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보이고 있는 점이다.

문헌정보학분야의 저작은 거의 대부분이 그 저자가 속한 학교 출판사나, 한국도서관협회, 아니면 구미무역출판사 또는 아세아출판사에서 발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이 시장성 확보에서 경제성을 가지지 못한 결과로서, 이들 출판사들의 초기의 노력은 가상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저자는 저작물은 몇건 되지는 않지만 한 주제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저자는 한 주제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저술활동을 하는 저자도 있다. 또한 다저자군에 속한 세부전공을 살펴보면 도서관학이나 정보학을 전공하는 자 보다는 비교적 서지학

을 전공하는 사람이 더욱더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지학연구분야가 그 동안 연구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학문으로 정착되어 그들의 학문성과가 그 어느분야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2 주제별 생산성

분류기준의 설정은 연구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므로 (1) 연구목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2)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며, (3) 분류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다음 <표 2>는 이를 근거로 해서 26개 항목에 따른 주제별 구분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내용분석시, 경우에 따라 복수의 주제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가능한 한 비중이 좀더 높은 단일 주제 분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제별 생산성을 26개 주제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단행본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주제는 독서지도가 12.6%, 정보검색 10.6%, 정보미디어 8.9%, 도서관경영 7.8%, 출판 및 인쇄 7.8%, 서지학 5.9%, 목록 5.2%, 분류 4.6%, 커뮤니케이션 3.8%, 도서관사 3.4%, 문헌정보학일반 3.1%, 정보사회론 3.1%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것은 독서지도분야가 가장 높은 생산성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 과목의 교양성에서 온 저자의 다양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학입시에 반영된 논술고사와 관련된 단행본이 많이 발행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문헌정보학일반, 분류, 목록은 지속적인 연구주제로서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량서지학,

〈표 2〉 주제별 발행상황 분석표

단위 : 종(%)

주 제	단 행 본
문헌정보학일반	24 (3.1)
목록	40 (5.2)
분류	35 (4.6)
색인·초록	11 (1.4)
전문직	7 (0.9)
도서관사	26 (3.4)
저작권	21 (2.7)
연구방법론	12 (1.6)
정보학이론	19 (2.5)
서지학	45 (5.9)
출판및인쇄	60 (7.8)
고서정리법	10 (1.3)
참고봉사	13 (1.7)
주제별서지	19 (2.5)
정보미디어	68 (8.9)
도서관경영	60 (7.8)
장서개발	11 (1.4)
독서지도	97 (12.6)
이용(자) 조사	6 (0.8)
커뮤니케이션	29 (3.8)
시스템분석	7 (0.9)
자동화	13 (1.7)
정보사회론	24 (3.1)
정보검색	81 (10.6)
계량서지학	5 (0.7)
인터넷	17 (2.2)
기타관련분야	7 (0.9)
계	767 (100.0)

저작권, 전문직, 시스템분석, 연구방법론, 이용(자)조사, 색인·초록, 참고봉사, 인터넷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행건수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도서관 관련 원론' 보다 정보와 관련된 주제들이 더욱 발행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문헌정보학은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거나 실험을 하는, 이론추구 보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로서의 정보학 응용 중심의 기능을 하는 역할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행본의 주제는 정보검색과 관련된 주제들이 빈번한 것을 볼 때 이론개발이나 실증적 분석 보다는 실무적인 문제해결이나 응용에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단절성을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이론 적용 결과나 이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지적해 줌으로써, 학계와 실무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분포결과를 가진 주제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표 3>에서는 단행본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대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시대별 기준은 1957-1969년, 1970-1979년, 1980-1989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1997년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인 1957년부터 1969년은 문헌정보학의 초창기에 해당되어 1960년대까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표 3>에서 보면 1950년대에서 1969년까지는 독서지도가 18.3%로 생산성이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분류가 16.7%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출판 및 인쇄와 서지학이 동일하게 11.7%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독서지도가 11.6%로 가장 생산성이 높았으며, 이어서 목적이 10.0%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분류와 도서관사가 똑같이 8.3% 순으로 연도별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독서지도와 정보미디어가 동일하게 12.9%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정보검색이 11.9%, 서지학 7.9%, 출판 및 인쇄 5.8%, 목록 4.7% 순으로 분석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정보검색과 정보미디어에 관한 연구주제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보검색이 12.3%, 독서지도 11.7%, 도서관경영 11.0%, 출판 및 인쇄 9.7%, 정보미디어 9.1% 순으로 생산성이 높은 주제로 규명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독서지도나 서지학에 관한 주제보다 정보검색에 관한 연구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주제로 나타나 학문의 발전 과정과 일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감소경향인 주제로는 도서관사, 분류, 목록, 서지학에 관한 저작의 발행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며, 여전히 큰 편차없이 지속유지 되고 있는 주제로는 문헌정보학일반, 참고봉사, 전문직에 관한 저작이었다. 또한 증가 경향인 주제로는 정보검색, 정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저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볼 분야로 정보미디어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주제이며, 1980년대 들어서 자동화, 시스템분석, 이용(자) 조사, 계량서지학, 저작권 등이 새로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추가

〈표 3〉 주제의 연대별 증감추이

단위 : 종(%)

주 제	연도별생산성			
	1957-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7
문헌정보학일반	2(3.3)	7(5.8)	7(2.5)	8(2.6)
목록	3(5.0)	12(10.0)	13(4.7)	12(3.9)
분류	10(16.7)	10(8.3)	10(3.6)	5(1.6)
색인·초록		3(2.5)	3(1.1)	5(1.6)
전 문 직		1(0.8)	3(1.1)	3(1.0)
도서관사	5(8.3)	10(8.3)	9(3.2)	2(0.7)
저 작 권			6(2.2)	15(4.9)
연구방법론		3(2.5)	4(1.4)	5(1.6)
정보학이론	2(3.3)	3(2.5)	8(2.9)	6(1.9)
서 지 학	7(11.7)	8(6.6)	22(7.9)	8(2.6)
출판 및 인쇄	7(11.7)	7(5.8)	16(5.8)	30(9.7)
고서정리법	1(1.7)	4(3.3)	4(1.4)	1(0.3)
참고봉사		3(2.5)	7(2.5)	3(1.0)
주제별서지	2(3.3)	3(2.5)	9(3.2)	5(1.6)
정보미디어		4(3.3)	36(12.9)	28(9.1)
도서관경영	6(10.0)	9(7.4)	11(4.0)	34(11.0)
장 서 개 발	1(1.7)	2(1.6)	5(1.8)	3(1.0)
독 서 지 도	11(18.3)	14(11.6)	36(12.9)	36(11.7)
이용(자)조사			3(1.1)	3(1.0)
커뮤니케이션	1(1.7)	6(4.9)	6(2.2)	16(5.2)
시스템분석			4(1.4)	3(1.0)
자 동 화			8(2.9)	5(1.6)
정보사회론		2(1.6)	9(3.2)	13(4.2)
정 보 검 색	2(3.3)	8(6.6)	33(11.9)	38(12.3)
계량서지학			3(1.1)	2(0.7)
인터넷			17(5.5)	
기타관련분야		2(1.6)	3(1.1)	2(0.7)
계	60/767(7.8)	121/767(15.7)	278/767(36.3)	308/767(40.2)

된 주제는 인터넷분야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문헌정보학일반, 색인·초록, 전문직에 관한 저작은 그다지 큰 편차가 없이 다소의 증감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독서지도와 서지학이 198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현저하게 감소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특정 학문관계 문헌목록 작성이 1970년 이전에는 연구주제로 채택되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정보학 관련 영역이 핵심·중심영역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매우 높은 주제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문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지만, 어느 한편만의 학문연구는 다른 한편의 학문을 사라지게 할 위험성도 있다.

〈표 4〉는 저자의 직종유형별로 생산성을 분석한 것이다. 저자의 분포현상을 분석해 보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저자의 다양성은 학문영역의 다변화와 균형적인 학문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박사학생, 교수, 전문도서관 사서들에게 있어 가장 생산량이 높은 주제는 독서지도로 각각 36.7%, 14.5%, 25.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사서는 문헌정보학일반 14.3%, 독서지도 9.5%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비교적 균등하게 주제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유의해서 살펴볼 분야로는 교수가 2, 3순위로 생산량이 많은 주제로는 정보검색과 정보미디어로 각각 12.9%와 1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석·박사학생에게 있어 2, 3순위로 생산량이 많은 주제는 정보검색 23.3%와 서지학 20.0%이다. 대학도서관 사서는 정보검색, 서지학, 출판 및 인쇄가 똑같이 23.8%를 점유하였다.

전문도서관 2, 3순위는 자동화 16.4%와 서지학 14.5% 순이다. 기타 연구자는 자동화와 인터넷에 동일하게 3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도서관 사서와 기타 연구자들이 생산한 분야는 독서지도와 자동화가 1순위 혹은 2순위를 차지하여 공통적으로 생산량이 높은 주제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4명이 참고봉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연구하였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자들은 점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교수집단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풍성한 이론적 연구와 그에 따른 지식들이 실무에 응용되지 못하고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헌정보학은 특히 이론과 실제간의 관계가 어느 학문보다 밀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사서들은 모두 연구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 연구인과 실무사서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의 장 혹은 연구개발 집단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연구자들과 실무자들간의 공동연구는 이론과 실무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때에야 진정한 학문적 진보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대학별 생산성

현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기관현황은 학부과정이 32개 대학, 석사과정이 16개교, 박사

〈표 4〉 저자의 직종별 분석표

단위:명(%)

주 제	단 행 본							기타	미상
	교수	석·박사 학생	사 서						
			대학	공공	학교	전문			
문헌정보학일반	25(4.4)	3(10.0)	6(14.3)			6(10.9)	6(12.0)		
목 록	13(2.3)	1(3.3)	2(4.8)	2(18.2)		4(7.3)	6(12.0)	1(16.7)	
분 류	27(4.7)	2(6.7)	3(7.1)	2(18.2)		4(7.3)	3(4.0)		
색인·초록	8(1.4)								
전 문 직	7(1.2)								
도 서 관 사	22(3.9)		2(18.2)					3(50.0)	
저 작 권	3(0.5)		3(7.1)			2(3.6)			
연구방법론	8(1.4)								
정보학이론	19(3.3)								
서 지 학	58(10.2)	6(20.0)	9(23.8)			8(14.5)			
출판 및 인쇄	18(3.2)		9(23.8)						
고서정리법	10(1.6)								
참고봉사	9(1.6)				2(50.0)				
주제별서지	19(3.3)								
정보미디어	62(11.0)					6(10.9)			
도서관경영	20(3.5)								
장 서 개 발	11(1.9)								
독 서 지 도	82(14.5)	11(36.7)	5(9.5)			14(25.5)	5(10.0)	2(33.3)	
이용(자)조사	2(0.4)								
커뮤니케이션	15(2.6)				2(50.0)				
시스템분석	8(1.4)		3(7.1)						
자 동 화	12(2.1)		2(4.8)			9(16.4)	15(30.0)		
정보사회론	24(4.2)								
정 보 검 색	73(12.9)	7(23.3)	9(23.8)	5(45.5)					
계량서지학	5(0.9)		2(4.8)			2(3.6)			
인 터 넷	2(0.4)						15(30.0)		
기타관련분야	7(1.2)								
계	569(100)	30(100)	42(100)	11(100)	4(100)	55(100)	50(100)	6(100)	

과정이 7개교, 전문대학이 6개교에 이르고 있어, 대학별 생산성 분석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우선 핵심 저자가 많이 있고, 다음으로 대학원 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된 것 등을 고려해 주요 5개 대학으로 국한해서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분석된 바 처럼 우선 시대별로 5개 대학의 저작상황 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서 1969년까지는 Y(3), C(2), S(2), E(1), K(1) 대학 순으로 저작활동이 펼쳐졌으며, 1970년대에는 C(13), S(7), Y(6), E(5), K(4) 대학 순으로 그 이전의 23년 동안에 왕성한 저작활동이 전개되었던 데이터가 수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C(20), S(14), Y(13), E(11), K(10) 대학 순으로 저작출판물이 많았으며, 1990년대에는 Y(16), C(15), S(9), E(8), K(8) 대학 순으로 단행본저작이 출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표 5>에서 나타난 바 처럼 연구저작의 출판이 상위인 대학은 C 대학으로 지금까지 50종의 저작물을 출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Y

대학이 38종, S 대학이 32종, E 대학이 25종, K 대학이 23종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징적인 부분은 1957-1970년에 걸쳐 4개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저술된 저작의 총수는 모두 9종, 1970년대는 35종, 1980년대는 68종, 1990년대는 56종의 단행본을 출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는 분석대상기간이 7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980년에 비해 약간 감소되는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1980년대 한국문헌정보학 발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는 전반적으로 박사·석사학위과정이 증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원에서도 연구가 아주 활발했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저작물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84년에는 정보관리학회지가 그리고 1986년에는 서지학연구가 창간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 분위기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관리학회에서 기획출판된 단행본 총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대학별 생산성 분석

()는 단행본 종수

대상 순위	C, E, K, S, Y				
	1957-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7	1957-1997
1	Y(3)	C(13)	C(20)	Y(16)	C(50)
2	C(2)	S(7)	S(14)	C(15)	Y(38)
3	S(2)	Y(6)	Y(13)	S(9)	S(32)
4	E(1)	E(5)	E(11)	E(8)	E(25)
5	K(1)	K(4)	K(10)	K(8)	K(23)

(대학은 알파벳 순)

〈표 6〉 핵심전공주제별 순위

()는 %

연도 순위	1957-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7
1	분류·목록 (39.2)	분류·목록 (37.8)	자동화 (28.8)	정보검색 (28.8)
2	서지학 (27.8)	서지학 (25.6)	정보검색 (26.2)	자동화 (25.7)
3	문헌정보학일반(20.4)	문헌정보학일반(23.8)	분류·목록 (19.4)	정보미디어 (19.4)
4	도서관사 (10.2)	자동화 (8.4)	참고봉사 (15.4)	분류·목록 (14.6)
5	자동화 (2.4)	정보검색 (4.4)	서지학 (10.2)	커뮤니케이션 (11.5)
계	(100.0)	(100.0)	(100.0)	(100.0)

2.4 핵심전공주제 생산성

핵심전공주제 생산성은 〈표 6〉에 나타난바 처럼 4개의 기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구분된 기간에 어느 주제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는가를 분석하여 그 핵심전공을 추출하였다. 767종에 대한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분석된 바 처럼 1957년에서 1970년까지는 분류·목록이 39.2%, 서지학 27.8%, 문헌정보학일반 20.4%, 도서관사 10.2%, 자동화 2.4% 순으로 전공주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1970년대에는 분류·목록이 37.8%, 서지학 25.6%, 문헌정보학일반 23.8%, 자동화 8.4%, 정보검색 4.4%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1957년부터 1980년까지 분류·목록학부문이 여느주제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문 및 현장에서 이 주제 분야가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동화가 28.8%, 정보검색 26.2%, 분류·목록 19.4%, 참고봉사 15.4%, 서지학 10.2% 순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1990년대에는 정보검색이

28.8%, 자동화 25.7%, 정보미디어 19.4%, 분류·목록 14.6%, 커뮤니케이션 11.5% 순으로 생산성이 분석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학문의 성향이 전통적 도서관학에 진보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정보학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성과의 집적과정으로 생산성이 높은 주제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0년대에 와서 위축된 주제분야는 분류·목록, 서지학, 도서관사로서 분류·목록과 서지학은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나 도서관사는 큰폭으로 감소된 분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자동화와 정보검색에 관한 주제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학문분야와 현장에서 정보학과 관련된 관심의 두드러진 증폭과 이러한 관심영역에 대한 연구결과의 집적과정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와서 위축된 주제분야는 분류·목록, 서지학, 문헌정보학일반으로서 이 중에서 분류·목록은 1970년에 비해 1980년대에는 18.4%나 감소하였으며, 서지학도 15.4%의 감소로 그 감소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 분석되었다. 크게 생산성이 증가한 분야로는 자동화로서 1970년에 비해 20.4%로 그리고 정보검색이 21.8%로

생산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분석된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학에서 진보적, 또는 기술지향적인 정보학이 응용되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2.5 다저자 생산성

본 항목에서는 다저자의 생산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저자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9종이상의 저작을 생산한 저자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J, A, Y, K, C, K₂, O, S가 9종이상 단행본을 출판한 다저자로 분석되었다.

시대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1957년에서 1970년까지는 A, L, C 순으로 단행본 종수가 6, 3, 2종을 저술한 저자가 다저자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J, A, K 순으로 단행본 출판종수가 9, 7, 6종을 저술한 저자가 다저자로 조사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Y, A, J 순으로 단행본 출판종수가 9, 5, 5종을 저술한 저자가 다저자로 분석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O, K, J 순으로 단행본 출판종수가 10, 8, 7종을 저술한 저자가 다저자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이한 부분은 상위 다저자군으로 형성된 J, A, Y, K, C, K₂, O중에서 거의 모든 다저자들이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저작 활동을 펼친것에 비해, 단지 O는 1990년대에 들어 연구저작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다저자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O는 신진학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학자군들처럼 저작들이 한 주제에 일관된 것이 아니라 저작의 주제가 광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국내의 단행본 다저자

()는 단행본 종수

연도 순위	1957-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7	1957-1997
1	A (6)	J (9)	Y (9)	O (10)	J (23)
2	L (3)	A (7)	A (5)	K (8)	A (21)
3	C (2)	K (6)	J (5)	J (7)	Y (15)
4	J (2)	Y (3)	C (4)	C (4)	K (13)
5	K (2)	C (2)	K (4)	Y (4)	C (11)
6	Y (2)	C ₂ (2)	K ₂ (4)	A (3)	K ₂ (10)
7	J ₂ (1)	K ₂ (2)	S (4)	K ₂ (3)	O (10)
8	L ₂ (1)	L (2)	J ₂ (3)	P (3)	S (9)
9	S (1)	S (2)	L (2)	L (2)	L (8)
10	K ₂ (1)	P (1)	S ₂ (1)	S (1)	C ₂ (7)

(同種時 알파벳 순)

〈표 8〉 주제분야별 다저자 분석

()는 단행본 종수

주제별 순위	독서지도	정보검색	정 보 미디어	도서관 경 영	출판 및 인 쇄	서지학	목록	분류	커뮤니 케이션	도서관사
1	K (3)	J (5)	H (3)	K (5)	A (9)	Y (15)	J (7)	J (10)	N (2)	K (2)
2	S (2)	S (5)	K (1)	L (3)	C (7)	C (11)	Y (6)	O (8)	K (1)	J (1)
3	K ₂ (1)	N (3)	L (1)	Y (3)	O (5)	S (9)	O (4)	K (7)	N (1)	Y (1)
4	L (1)	L (2)	N (1)	K ₂ (2)	K (3)	A (8)	K (2)	K ₂ (4)	K ₂ (1)	K ₂ (1)
5	Y (1)	L ₂ (2)	L ₂ (1)	N (1)	S (2)	K (2)	N (1)	L (3)	Y (1)	Y ₂ (1)

(同種時 알파벳 순)

2.6 주제분야별 다저자 생산성

다음은 주제분야별 저자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저자별 생산성은 〈표 2〉에 나타난 상위 10개 주제를 기본으로하여 각각 5위까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독서지도는 K(3), S(2), K₂(1) 순으로 주제별 다저자 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검색은 J(5), S(5), N(3), 정보미디어는 H(3), K(1), L(1), 도서관경영은 K(5), L(3), Y(3), 출판 및 인쇄는 A(9), C(7), O(5), 서지학은 Y(15), C(11), S(9), 목록은 J(7), Y(6), O(4), 분류는 J(10), O(8), K(7), 커뮤니케이션은 N(2), C(1), K(1), 도서관사는 K(2), J(1), Y(1)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특이한 현상은 유사한 전공분야에 있어서 다저자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J, K, H, L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서지학에서 Y는 15종, C는 11종, S는 9종으로 비교적 연구 저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분류에서 J가 10종, 목록에서 J가 8종, 도서관사에서 K가 2

종, 독서지도에서 K가 3종 등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서지학은 도서관학이나 정보학보다는 약간 분리된 성격으로 인해 저술활동이 서지학에만 집중된 것인 반면 도서관학이나 정보학은 유사성으로 인해 다저자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2.7 번역본 생산성

767종의 단행본을 분석한 결과 저술서가 89%(683종)이고, 번역서가 11%(84종)로 분석되었다.

〈표 9〉는 번역물 84종(11%)에 대한 언어 분석을 한 것이다.

〈표 9〉에서와 같이 번역본의 언어별 구성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50년에서 1970년까지는 영어가 74.2%, 일본어 19.4%, 중국어 3.2%, 불어 3.2%순으로 분석되었는데, 학문의 수입이 영어권이 영어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영어 77.8%, 일본어 17.8%, 중국어 4.4%순으로 조사됐으며, 1980년대에는 영어 80.6%, 일본어 13.4%, 중국어 3.0%, 불어 1.5%, 독일어 1.5%, 1990년대에는 영어 83.6%, 일본어

〈표 9〉 번역본 생산성 분석

()는 %

연도 언어	1957-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7	
영 어	5	(74.2)	17	(77.8)	21	(80.6)	22	(83.6)
일본어	1	(19.4)	5	(17.8)	4	(13.4)	2	(14.4)
중국어	1	(3.2)	1	(4.4)	1	(3.0)	1	(2.0)
불 어	1	(3.2)	0	(0.0)	1	(1.5)	0	(0.0)
독일어	0	(0.0)	0	(0.0)	1	(1.5)	0	(0.0)
계	8	(100.0)	23	(100.0)	28	(100.0)	25	(100.0)

14.4%, 중국어 2.0%,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영어가 1순으로 분석된 것은 문헌정보학은 우리나라의 자생적 학문이 아니고, 미국 일변도의 수입학문이라는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일본어와 중국어가 그 뒤를 이은 것은 문화적 인접국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보다 일본어가 우선된 것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이 일본이 앞서 미국으로부터 일찍이 수용한 까닭에 이에 대한 문헌의 구입이 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영어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아진 반면에 일본어는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세대가 일본어 교육을 받은 학자군들이 많은 반면에 2세대들은 미국 유학생이 많은 까닭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어는 거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불어, 독일어는 일시적으로 어느 한 기간에만 원문이 발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원문자료중 영어문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헌정보학의 발생학적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이며, 선진국의 이론을 수용하고자 하는 선학자들의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8 연도별 생산성

다음 〈표 10〉에서는 단행본저작에 대한 동향과 우리 문헌정보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도별 생산성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7종의 단행본을 대상으로해서 연도별로 분석해 보았다. 1970년 이전까지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단행본이 발행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다소 왕성한 단행본저작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은 단행본이 발행된 연도는 1995-1996년까지였고, 그 다음이 1993-1994년까지로 나타났다.

1997년에 발행된 단행본이 제일 적게 이루어진 주된 원인은 한권의 단행본이 그 이전년도에 너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행될 때까지의 시간적 지체(time-lag)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아마도 문헌정보학 정착기를 맞아 보다 다양한 학문예의 열의로 인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표 10〉 연도별 생산성

연 도	단행본 수량	%
1957 - 1960	6	0.8
1961 - 1963	9	1.2
1964 - 1965	7	0.9
1966 - 1967	6	0.8
1968 - 1970	23	3.1
1971 - 1972	27	3.5
1973 - 1974	16	2.0
1975 - 1976	15	1.9
1977 - 1978	19	2.5
1979 - 1980	32	4.2
1981 - 1982	32	4.2
1983 - 1984	32	4.2
1985 - 1986	56	7.3
1987 - 1988	70	9.1
1989 - 1990	86	11.1
1991 - 1992	78	10.2
1993 - 1994	101	13.2
1995 - 1996	118	15.4
1997	34	4.4
계	767	100.0

3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문헌정보학분야의 단행본저작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1997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단행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연구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7년부터 1997년까지 발행된 문헌정보학 단행본 종수는 총 767종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1957년부터 1997년까지 가장 많은 단행본을 출판한 다저자군으로는 J, A, Y, K, C, K₂, O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10종 이상의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며, 총 767종 가운데 이들의 출판 생산량 182종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전체의 23.7%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연대별 생산성은 1957-1969년까지는 60종, 1970년대에는 121종, 1980년대에는 278종, 그리고 1990년대에는 308종이 발행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연대별 생산성 분석에 나타난바 처럼 지수함수적 법칙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문의 발전상 건강한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총 데이터 767종 가운데 교수가 약 2/3 이상(569종)을 출판하였고, 사서(112종), 기타연구자(50종), 석·박사학생(30종)의 순으로 나타나 문헌정보학 관련 단행본 출판집단은 주로 교수 그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다저자로는 1950년에서 1970년은 A(6), L(3)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에는

J(9), A(7) 1980년대에는 Y(9), A(5) 1990년대에는 O(10), K(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종 이상의 단행본을 출판한 J(23), A(21), Y(15), K(13), C(11), K₂(10), O(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연도별 생산성분석은 1989-1990년(86종)부터 계속해서 왕성한 단행본저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1996년(118종)에 아주 절정의 단행본저작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 고 문 헌

- 남태우. 1986. 문헌정보학 교육방법론의 고찰, 『전남대학교논문집: 사회과학편』, 31: 139-165.
- 남태우·정준민. 1995.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193-246.
- 리재철. 1990.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 도서관학과의 과명칭개정과 관련하여. 『정보관리학회지』, 7(2): 3-34.
- 上田修一·倉田敬子. 남태우·최희곤 공역. 1998. 『정보의 발생과 전달론』, 서울: 경인문화사.
- 유재욱. 1993.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0(2): 145-167.
- 한복희. 1982.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1959- 198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논문집』, 9: 567-588.
- Allen, B. & Reser, D. 1990. "Content Analysi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3): 251-262.
- Borgman, C. L. & Rice, R. E. 1992.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Science and Communication : A Bibliometric Analysis." *JASIS*, 43: 397-411.
- Busha, C. H. 1978. "Research Method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5, pp. 254-263.
- Chen, C. C. 1986. "The Effect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on Academic Libraries."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17: 110-118.
- Chubin, D. E. & Moitra Soumyo D. 1975. "Content Analysis of References : Adjunct Alternative to Citation Counting?" *Social Studies of Science*, 5: 423-41.
- Enger, K. B., Quirk, J. A., Stewart, J. A. 1989. "Statistical methods used by author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 articl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1(1): 37-46.
- Feehan, P. E. et al.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2): 173-185.
- Garfield, Eugene. 1972. "Citation Analysis as a Tool in Journal Evaluation." *Science*, 178: 471-479.
- Hafner, Arthur W. 1977.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hysiology Source Journal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9: 19-42.
- Javelin, K., Vakkari, P.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Tenopir, C. 1985.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 Characteristics and Curricular." *Education for Information*, 3(1): 3-28.
- Vickery, B. C. 1970. "Methodology in Research." *Aslib Proceedings*, 22(12): 597-606.